



차이나

CHINA Market Watch

마켓 워치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전화 : 86-10-6505-2672

이메일 : beijingk@kita.net

1 中 캠핑 시장, 2030년 시장규모 4,900억 위안 달성 전망

- 아이메이(艾媒)컨설팅은 중국 캠핑 시장규모가 올해 2,920억 위안(한화 약 63조 원), 2030년에는 4,900억 위안(약 108조 원)에 달할 것으로 전망
- 캠핑 관련 기업 수도 빠르게 증가. 2023~2025년 연간 신규 등록 기업 수는 6~7만 개 수준을 유지했으며, 올해 3월 기준 캠핑 관련 존속 기업 수는 27만 개사로 집계
- 아웃도어 레저 소비가 확대되면서 캠핑 분야 소비도 단순 장비 구매를 넘어 스포츠·음악 등 다양한 활동과 연계된 체험·복합형 소비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
- 지난 청명절 기간 베이징·장강삼각주 등 주요 지역 캠핑장의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었으며, 가족 단위 이용객 비중도 70%로 높은 수준을 보임

자료원 : 재경연합통신, 증권일보

2 中, 독서 진흥 정책 강화로 디지털 독서 시장 확대 전망

- 국가신문출판서는 4월 20~26일 '전국민 독서 활동 주간'을 시행하고 매년 4월 넷째 주를 해당 주간으로 지정해 독서 진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
- 이번 발표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독서 보급 확대가 명시되면서 전자책, 오디오북, 디지털 독서 플랫폼, 전자 데이터베이스, 스마트 독서 단말기 등 관련 시장의 수혜 가능성이 커짐
-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24년 중국 디지털 독서 시장 매출은 661억 위안(약 14조 원)이며 이용자 규모는 약 6.7억 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약 16.7%, 17.5% 증가
- 그 중 디지털 문학 시장규모는 2025년 502억 위안(약 11조 원)으로 전년 대비 16.6% 증가하며 디지털 독서 시장의 성장세를 견인

- 정부는 독서 할인쿠폰, 카드 발급과 함께 출판사, 디지털 독서 플랫폼이 참여하는 구매 촉진 행사를 활성화하여 일반·디지털 도서 구매 수요를 늘릴 방침임
- 관련된 주요기업으로는 징동의 도서 유통 채널인 징동도서(京东图书), 전자책 플랫폼인 iReader (掌阅科技), 텐센트 산하 중국 최대 웹소설 플랫폼인 차이나리터처러(阅文集团) 등임

〈주요 디지털 도서 출판 플랫폼〉



자료원 : CCTV

3 중국 경제, 첨단 제조업 중심 매출 증대

- 국가세무총국(4/1)은 올해 중국 경제가 양호한 출발을 보였으며, 성장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질적 개선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
- 1~3월 기준 제조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.4% 증가하였으며, 그 중 첨단 산업 매출은 14.6% 증가
 - 의약, 항공·우주, 전자·통신장비 등의 첨단 제조업 매출은 12.7% 증가
 - 전자상거래 및 지식재산권 관련 고부가가치 첨단 서비스업 매출은 15.8% 증가
 - 반도체(집적회로)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설계 매출 48.9%, 제조 매출 40.7% 증가
- 제조업 매출의 약 46.5%를 차지하는 장비제조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.4%p 증가함

자료원 : 국가세무총국, 인민일보

4 中 토지시장, 공급 총량 통제와 입지 중심 재편 진행

- 중국지수연구원(中指研究院)에 따르면 1분기 전국 300개 주요 도시 주택용지 공급 면적은 6,472만 제곱미터로 전년 동기 대비 23.8% 감소, 거래 면적은 5,893만 제곱미터로 25.9% 감소
- 이러한 추세는 단순한 부동산 경기 위축이라기보다 중앙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기조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역별 분양 여건과 개발 진도에 맞춰 신규 공급을 조절한 결과로 분석됨
- 2026년 정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△공급 총량 통제, △재고 해소, △공급 구조 고도화를 제시.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연간 토지 공급 규모를 줄이는 한편 역세권·기반시설 완비 지역·고용 밀집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재편할 것을 명시
- 베이징시는 올해 주택용지 공급 계획을 전년 대비 40~60헥타르 축소한 750~790헥타르로 설정, 이 중 200~240헥타르는 상업·주거 복합용지로 배정할 계획임

자료원 : 증권일보

5 中 공립병원, AI 도입으로 운영관리 효율 제고

- 최근 베이징시 안딩(安贞)병원과 차이나텔레콤은 공동으로 중국 최초의 '공립병원 운영관리 대형 모델'을 발표
- 해당 AI 모델 구축 과정에서 안딩병원은 병원 운영·관리데이터를 제공하였으며 차이나텔레콤은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과 AI 에이전트 개발을 담당함
- 이를 통해 △병원 통합정보시스템(HIS), △의료소모품 물류관리 시스템(SPD), △운영관리 시스템(ODR)을 연계하고, 임상·약품·재무·의료보험 데이터를 통합하여 운영관리 효율을 제고
- 병원 운영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서 문제 발생 시의 대응 속도는 약 95% 향상되었으며, AI 분석을 통해 진료과별 비용 구조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 효율이 약 60% 향상됨

자료원 : 경제 참고보